여론조사 실시 전 의회 보고하라니…

여수시 '지자체장 권한침해' 재의 요구
시의회 본회의 조례안 표결 결국 부결

"지자체장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여수시가 여수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0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여수시가 재의 요구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전체 의원 26명 가운데 찬성은 11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이 조례안은 부결됐다. 재의 요구가 들어온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지만 이 조례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 재의(再議)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의결이 확정된다.

지난 9월 이미경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중요 정책을 시행할 때 시민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안을 명문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검토에 나선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장은 여론조사를 할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수정안은 지난달 열린 여수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여수시는 수정된 조항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론 조사를 하기 전 의회에 보고하는 지자체는 없고 판례를 보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 집행을 견제할 때 사후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자칫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사전 보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사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부터 낭만포차 이전, 남산공원 조성사업,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사업,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 등 주요 사업 등 47건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순천 이어 여수시도 관광지 불법훼손 강력 대응

돌산 소미산 개발 원상복구 명령
내년 1월까지 불이행땐 형사 고발

여수시가 대표 관광지인 돌산읍 소미산 정상을 무단으로 훼손한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순천시가 순천만습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웃인 여수시도 경관보호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월 소득창출과 경관형 산림조성을 위해 소미산 정상부에 동백나무 1㏊를 심는다며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업체는 폭 3m, 길이 870m 규모의 작업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도로 폭을 10m 넓히고 인가 면적보다 많은 1.73㏊의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일자 업체 측은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했고, 5억원을 들여 훼손된 곳에 가시나무를 심어 복원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복구 상황을 지켜본 뒤 1월까지 불법 훼손된 구간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불법 훼손된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정상부. /연합뉴스

여수시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환경보전 사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하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12일 순천만습지 인근의 염전과 농지를 불법 매립한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구상권 행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게시한 후 염전, 농지 등 3만㎡를 매립한 뒤 나무와 석축을 쌓는 등 공원을 조성하다가 순천시에 적발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나주시·공무원노조 상생협력 손 맞잡다

나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가 상생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나주시는 지난 17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와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짓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은 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건·인사제도 개선, 양성평등,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조합원 후생복지 증진 등 총 84개 주요 조문으로 구성됐다.

나주시는 2018년 7월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접수 이후 공식 상견례를 비롯한 수차례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2년 4개월간 안건을 놓고 조율한 끝에 이날 단체협약 최종안을 합의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함평군청 직장내 괴롭힘' 국민청원 파장

"군청 과장 심한 욕설 자괴감"
공무원 아내, 청와대에 청원

함평군 공무원의 아내가 '군청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려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청원인은 함평군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아내로,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평군청 직장 내 괴롭힘 맞나 싶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7개월 된 아기 키우는 엄마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에서 청원인은 남편의 상관인 군청 과장 A씨가 지난 8일 밤 9시께 남편에게 전화해 "○○○ 없는 ○○, 너 내일 나오면 ○○○를 깨버린다"는 등 심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A과장이 남편에게 심한 욕설은 한 이유는 남편이 금요일 오후 출장으로 인해 주간업무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어머님과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아무 말없이 참으며 눈물을 훔쳤다"면서 "이걸 참아야 하는 문제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이어 "남편은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걱정돼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글을 올리는 것은 그 분(A과장)의 파면이나 징계를 원해서가 아니다. 남편이 당했던 일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과장은 "중요하고 비중있는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 일에 대한 열의로 너무 과하게 말한 것같다.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바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함평군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군수실을 항의방문했다. 노조는 이상익 군수에게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 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담양대숲마루, 담양동초에 통학차량 지원금 2억

첨단문화복합단지 시행사인 담양대숲마루㈜와 양우건설㈜이 담양동초등학교에 통학차량 지원금 2억4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담양대숲마루㈜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담양군과 양우건설㈜, 효림종합건설㈜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이달 중 공동주택 680세대와 단독주택 772가구 중 80가구가 준공한다.

담양대숲마루는 사업지 내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에서 통학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차량 지원금을 기탁했다.

김승태 담양대숲마루 대표는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전원생활을 만끽하며 살기 좋은 마을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성장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순직 소방관에 감사"… 대구 시민, 순천소방서에 격려품

대구에 사는 한 시민이 구조작업 중 순직한 소방관의 사연에 감동해 순천소방서에 격려품을 보냈다.

18일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에 사는 김모씨가 트럭으로 초코파이 30박스와 박카스 12박스, 산삼배양근 8상자를 보내왔다.

김씨 대신 트럭을 몰고 온 지인은 "최근 뉴스에서 지난 7월 구례 피아골에서 구조작업에 나섰다가 순직한 김국환 소방장의 이야기에 감동해 김씨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수상구조대에서 근무하던 김 소방장은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에서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던 중 순직했다.

순천소방서는 대구 시민의 뜻에 따라 일선 119구조대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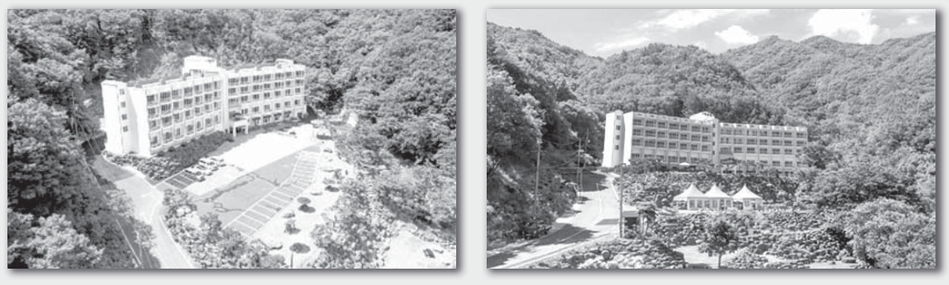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리조트 매매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75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